

현대자동차, 상용차 신규 금융지원 상품 출시

대형트럭 구매시 기존 대비 최대 1.6% 낮은 시장 최저금리 4.1% 적용

현대자동차(주)가 현대캐머셜, 화물복지재단과 손잡고 화물복지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현대상용차 구매 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할부 상품 '화물복지재단 전용 저금리 오토할부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화물복지재단 회원(Nice 6등급 이내)이 현대캐

머셜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대형트럭(카고, 트랙터 총 2종)을 구매할 경우, 기존 오토할부 상품 대비 최대 1.6% 낮은 시장 최저금리 4.1%를 적용 받는 신차 할부 프로그램이다.

특히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장기 대출로 리스크가 증가하더라도 추후 금리가 인상되지 않아 고객의

상용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화물차주들의 월 할부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차주와 가족들의 장학 및 교육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 지원, 건강 검진 및 문화 생활 지원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인 화물차주 회의의 금

융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금융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캐머셜과 협력해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캐머셜은 3개월 동안 거치 이지만 상환하고, 4개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3개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형트럭 고객 대상 '거치 이자 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프로그램 론칭 기념으로 올해 말까지 첫

회차 비용 납부 시 거치 이자 면제를 시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품 관련 문의는 전국 영업지점 또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080-200-6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규 금융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상용차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개공, '주부모니터' 위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1일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제3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도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5세미만 주부를 대상, 2주간 지원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12인의 주부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 주부모니터 운영계획 설명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혁신에코코트 3단지 주부모니터를 도내 최초로 도입,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주초기 민원이 줄어들었으며 (진안, 임실, 장수, 무주)농어촌 임대주택 민성 B-2BL 공공임대아파트 설계 참여, 주부의견을 설계에 적용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주부모니터 제3기는 향후 2년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민성지구 B-2BL 공공임대주택, 진안, 임실, 장수, 무주 농어촌임대주택에 대한 마감공정의 품질점검 뿐 아니라 민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설계에 참가, 아이디어 제안 품질개선 등 입주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 중기청, '찾아가는 메이커 서비스' 운영

위기대응지역 읍·면단위 소재 학교 우선 선정

3D프린팅 모델링 청소년 메이커 교육 등 11월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관 김광재, 이하 전북지방중기청)은 10월부터 11월중 도내(초, 중, 고등학생) 대상, 전북 시험제품제작소와 함께 '2018년 찾아가는 메이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시험제품제작소는 2015년 12월부터 전북지방중기청,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참여, 학생 포함한 일반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제작과 메이커 교육을 하고 지리적 여건 등 문화,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도내 학교를 대상,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격차를 해소,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자 참여기관들과 운영기관(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총 12회로 구성, 시험제품제작소 내 모바일로나즈 등 3D프린터를 포함한 장비를 이동차량에 실

고 신청학교에 직접 방문한다. 이에 10월 12일 군산서해초등학교를 시작, '2018년 찾아가는 메이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찾아가는 메이커 서비스를 통해 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선풍제작서비스와 교육을 제공, 성장기부터 메이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간은 (9월 21일~10월 19일), 전북 시험제품제작소 홈페이지(www.jp3dcafe.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자경 주무관(063-210-6413) 전북시험제품제작소 박혜진 매니저(063-714-2620)에게 하면된다.

/김영태 기자

'소외된 이웃 위한 아름다운동반자 될 것'

롯데백 전주점,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식' 체결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11일 대한적십자 전북지사(회장 김광호)와 '나눔활동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와 파트너십을 이뤄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동반자 될 것을 협약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전 기부문화 운동, 안전교육 보급활동 상호 협력, 재난구호활동 동참 등 적십자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환섭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은 "기업은 지역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롯데백화점이 전북에서 가장 지역을 사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협동,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11일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와 '나눔활동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지역내 소외된 분들에게 최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매년 지역민과의 친화사업을 진행했고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사뭇대 봉사단'이 매월 인보노인복지관, 다운아동지역센터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우정청 경영전략회의

전북지방우정청은 11일 김성철 청장을 비롯한 각 총괄국장들과 우정청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편, 예금, 보험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분석과 연도말 사업 전망을 통한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 경영평가 최우수청 달성을 위해 총괄국 및 우정청 부서별 추진 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울러, 김성철 청장은 "지난 3분기 동안 전 종사원이 열정적 사업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남은 기간 중 알찬 마무리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당부했다. 또한, "4분기에도 고객감동, 직원행복,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으로 우정청과 현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우정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 남원에 행복 전달

무료 진료 · 장수 사진 촬영 등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은 조선대학교병원(배해원 병원장)과 11일 남원 운봉농협 2층 대강당에서 관내 농업인 350여명을 대상, 무료 의료진,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했다.

남원 운봉지역에서는 '행복버스사업' 일환으로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진 20여명이 찾아와 지역 농민 200여명을 대상, 정확한 진단에 따른 의료 봉사를 하여 수확철을 맞아 피로가 누적된 어르신들의 고질적인 농부병 해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전용 디스튜디오 대표는 150여명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는 장수사진촬영을 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영교 운봉농협조합장은 "농업인 행복버스를 우리지역에서 펼칠 수 있게되어 수확철 농사일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운봉농협은 조합원의 행복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복지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농촌종합복지서비스'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중양회,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익산지사-원광대 전기공학과 합동 'Junior 전기교실' 열어

한국전력 익산지사(지사장 이건구, 위원장 김호기)는 지난 10일 이리중 1학년 25명을 대상, 원광대 전기공학과와 합동 'Junior 전기교실'을 열었다.

이건구 지사장은 "학생들이 전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력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며, "원광대 전기공학과 학생들도 전기 공학도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기본적인 전기이론, 전력의 생산과 소비, 스마트 그리드 전력 ICT 등 다양한 주제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 전기 지식에

대한 스피드 퀴즈도 진행했다.

원광대 전기공학과와 함께한 '전기공학 Q&A'를 통해 전기 상식을 배우고 평소 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배전설비, K-BEMS(한국전력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를 견학한 후, 과학 실험 키트를 사용,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경주도 했다.

이리중 이종숙 교사는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전기 에너지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끼를 펼칠 수 있는 진로 체험의 기회가 많아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학교는 진로체험지원 포털사이트(ggongil.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